

## 베이터우 하트 빌리지(온천탕까지 이어지는 중심 도로)

MRT 신베이터우 역에서 언덕을 올라가면 북적이는 베이터우 온천 거리에서 조금 떨어져 조용하고 푸르른 모습을 간직한 베이터우 하트 빌리지가 있습니다. 옛 부양촌의 느낌을 살린 둥근 아치형 입구를 지나면 마을의 중심 도로가 나오며 붉은색 문과 시멘트 타일, 초록색 나무 창문은 이 지역의 대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건축물은 비좁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 거주민들이 고유의 방식으로 확장하여 탄생한 이곳만의 공간적 특징입니다.

또한, 하트 빌리지는 대만에서 유일하게 온천이 있었던 군의관 부양촌으로 큰길의 끝에는 마을에서 가장 이색적인 온천탕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목욕탕의 물을 공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 대신에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목욕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의 주민들은 현대식 목욕 습관을 좋아하지 않았고 온천에서 유황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욕을 기다리는 시간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사교의 시간이었고 마을 전체가 나이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이곳만의 특색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부에 가면 풍부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 구불구불한 골목을 걸으며 온천에서 힐링의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 쉐이처랴오 둘레길

타이베이에는 산, 냇물, 숲, 논이 어우러져 별천지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특별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심지어 높이 차이도 30미터 정도밖에 나지 않으니,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도 이보다 더 친화적일 수 없습니다.

양명산의 주쯔 호수(竹子湖)에 있는 쉐이처랴오 둘레길은 매년 3~4월에 알로카시아가 만개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흰색 외에도 빨강, 초록, 분홍, 보라 등 다채로운 색상의 알로카시아가 피며, 이 시기가 지난 매년 5~6월 초여름에는 형형색색의 수국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벼농사를 지었던 초창기 주쯔 호수 지역의 쉐이처랴오 둘레길은 원래 청나라 때 지역 주민들이 벼를 따러 지나다니던 옛길이었으며, 이후 운하가 개통됨에 따라 농촌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총독부는 이곳에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새로운 품종의 벼를 심었고 훗날 평라이(蓬萊) 쌀이라고 이름 불리었습니다. 후에 지역 농민들은 고산 채소 재배도 시도했지만, 대만의 교통이 점점 더 편리해지면서 다른 산간 지역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곳은 알로카시아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되어 타이베이 사람들에게 주쯔 호수에 대한 가장 선명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 삼각도 나루터

삼각도 나루터를 모르는 타이베이 사람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나룻배가 다니던 삼각지 나루터였던 이곳은 마을을 연결하는 교통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배들을 정박해 두던 항구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5년 지룽강 제1차 정비 사업으로 인해 부두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며 사라졌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삼각도 나루터라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가장 번성했던 시절에는 배가 200여 척에 달했고, 4만톤급 선박이 많은 양의 석탄을 싣고 시즈까지 곧장 상류로 항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지룽강의 물을 마시고, 빨래를 하고, 오리를 기르며, 조개를 캐고, 물고기와 새우를 잡으며 자랐지만, 이후 하천이 공업으로 인해 오염되면서 점차 지룽강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보급 용선 제작자인 류청정(劉清正)은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 들어선 후 원산 호텔 아래에 30~40척의 군함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양자호(陽字號)가 이곳에 정박해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부두 옆 나룻배에 조용히 정박되어 있는 여러 척의 삼판과 용선의 모습을 통해 삼각도와 지룽강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으로써 지금까지도 삼판이 줄지어 정박되어 있는 타이베이에서 몇 안 되는 부두 중 한 곳입니다.

## 마야정사(장다첸 선생 기념관)

이곳에 오게 되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전통 회화의 대가였던 장다첸 선생의 “마야정사”의 손님이 된 것처럼 그의 생애 마지막 5년간의 일화를 둘러보세요. 1층 거실, 식당, 대형 화실, 소형 접대실은 물론 앞 정원, 중정, 뒷 정원 등의 야외 공간을 거닐다 보면 그의 뛰어난 예술적 업적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공간과 풍경은 그의 유언에 따라 사후 정부에 기증되어 현재에는 고궁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층 거실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으며 벽면에는 1982년에 받은 중정 훈장과 동서양의 두 위대한 화가인 푸신위(溥心畬) 그리고 피카소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장다첸의 친필 메뉴판인 “빈연식첩(賓筵食帖)”을 볼 수 있는데, 장다첸이 연회를 주최해 장쉐량과 그의 아내, 그리고 오랜 친구들을 초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형 화실은 수묵화와 채색화의 걸작 “여산도(廬山圖)”가 탄생한 곳으로, 붓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 장다첸의 밀랍 인형이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벽면에는 둔황 동굴 앞에서 찍은 사진, 형들의 사진, 어머니와 스승들의 서예와 그림 작품 등 다양한 장다첸의 기념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졸졸 흐르는 물과 연못에서 헤엄치는 잉어, 원숭이가 놀고 학이 노래하는 생태적 분위기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다첸 선생이 가장 좋아했던 매화나무에 더하여 흐르는 물과 쌓아 올린 돌, 분재 등이 그의 우아한 정원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 정원의 바위에는 “매구(梅丘)”라는 글귀가 친필로 새겨져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가 영면한 곳입니다. 같은 곳 “영아지(影娥池)” 옆 오솔길에는 “익연(翼然)”과 “분한(分寒)”이라는 두 개의 정자가 있어 바깥 쌍시(雙溪)의 먼 산과 물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차경(借景)” 설계의 묘미를 드러냅니다. 정원 조경에서 느껴지는 우아함은 장다첸 선생의 부지런한 일상생활과 더불어 또 다른 미적 이념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팔지란 번자정

대부분의 사람은 텐무라고 하면 텐무 야구장, 스동 시장, 다예 타카시마야 등 스동로(士東路) 주변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한 지역에서 북쪽으로 10분만 걸어가면 조용하고 절제된 풍경과 함께 뚜렷한 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텐허(天和) 공원으로 들어가면 공원 맨 끝자락에 돌로 만든 기념비와 매우 맑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인공 연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연못의 물길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대 우물입니다.

18세기 초 장저우(漳州)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왔을 때 현재에도 물이 넘쳐흐르는 오래된 우물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는 곧 그 우물이 300년 이상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족 사람들은 그 우물이 대만 원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우물임을 알고는 당시에 원주민을 지칭하던 용어를 사용하여 "번정(원주민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이다거란 원주민은 이곳을 온천이라는 뜻의 팻시란(Pattsiran)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이 곧 이곳의 옛 이름인 "팔지란(바즈란)"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공원의 역사·문화적 의미 외에도 나무들이 가득하고 꽃생강, 루엘리아, 오돈토네마 등의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이나 인문을 좋아하는 누구나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 지산 신사 유적(우농 열람실)

지산 공원을 방문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읽기 좋은 책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공원에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내도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수천 년 동안 자연적인 풍화 작용을 받아 조성된 풍부한 지질학적 경관과 함께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으며, 공원 산책로 끝에 있는 300년 된 녹나무는 공원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는 선사 시기의 문화 고고학적 유적지가 많이 발굴되어 있으며, 청나라 한족 이주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서애문(西隘門)과 혜제궁(惠濟宮)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애문은 마을 간의 계급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혜제궁은 마을 내의 제사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의 지산암 신사는 더 이상 존재하진 않지만 “백이십감” 계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계단은 그 당시 참배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었으며 신도들의 신체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신사의 영예를 상징하는 계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옛 신사의 터는 중화민국 정보부 창설의 핵심 인물이자 항일 전쟁 당시 장제스 총통의 신임을 받았던 대립(戴笠(호 우농))의 공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세운 “우농 열람실”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열람실 외에도 우농로, 우농초등학교, 우성거리, 우성초등학교, 우성 신촌 등 지산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립을 기념했습니다. 오늘날 우농 열람실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환경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독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대정정 예술제 이야기 벽화

분주한 타이베이 시민대로의 입구를 지나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성된 타오통 거리로 들어가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 온 이 지역은 일본풍의 분위기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 들어선 후에도 장징궈 전 총통, 반차오 임씨 가문, 두충밍(杜聰明) 대만 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등과 같은 고위 엘리트와 행정 관료들은 모두 이 지역에 거주해 왔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 기간(1951년~1965년) 동안에는 미군이 타이베이에 주둔함에 따라 이곳에 많은 술집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에 점차 변화가로 변모했습니다. 대만 드라마 <화등초상>은 일본 경제가 회복되며 일본 사업가들이 타이베이에 회사를 잇달아 설립하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빛 히카리" 바는 린썬북로 골목에 위치한 슈가 바(Sugar Bar)의 입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오통을 산책하며 골목길 어딘가에서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들과 마주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양성이 짙은 타오통 거리 일대를 거닐다 보면 다채로운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상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정정 유적지를 방문해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긴 벽화를 구경하다 보면 이 지역의 상점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검담산(원산수신사)

번화한 스린 야시장 바로 옆에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많은 하이킹 애호가들이 찾는 숨겨진 길인 "원산수신사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입구는 타이베이 수도국 사업차 양명 영업 지부의 주차장에 숨겨져 있으며, 걸어서 5분이면 일제 강점기 때 남겨진 수자원 관리 장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타이베이 전역에 물을 공급했던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 녹슬어버린 지 오래지만, "활수두(活水頭)"라는 글씨가 쓰인 장비 옆 건물은 과거에 원산 저수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좀 더 걷다 보면 원산수신사에 도착합니다. 일본 신사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신사를 수호하는 짐승 모습의 개, 정수 연못, 석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신사를 건립한 식민주의자들이 떠난 뒤에는 더 이상 신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곳은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와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참배객과 종소리도 거의 없고, 고요함과 희미한 적막마저 느껴집니다. 만약 중국의 문인들이 적벽대전의 유적지를 보았다면 "당대에는 위대한 전사였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강물과 같이 쉬지 않고 흐르지만, 그 흐름은 다하는 일 없이 여전히 흐르고"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타이베이에서는 모두에게 익숙한 유적지보다 이렇게 조용한 공간이 시간과 역사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담산 언덕을 오르면 웨이핑 테라스와 베이옌 테라스에서 좌우로 넓게 펼쳐진 전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대만 기독교 장로교회 따다오청 교회

타이베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국에서 친구가 방문할 때 따다오청에 꼭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간저우 거리(甘州街)에서 디화 거리(迪化街)까지 각종 간식, 디저트, 건어물 등이 즐비한 이곳은 대만 서민들의 음식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 중 하나입니다.

타이베이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여행자라면 대만 기독교 장로교회 따다오청 교회도 놓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간저우 거리에 위치한 이 교회는 일제 강점기 차(茶) 거상이었던 리춘성(李春生)이 맥케이 목사가 설립한 교회의 새 예배당을 짓기 위해 단독으로 기부하며 지어진 건물입니다. 리춘성은 신앙심이 깊고, 부유하며 세련된 취향을 갖고 있었기에 교회에 기부할 때도 당연히 최고의 건축 자재와 제일 아름다운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고딕 양식의 붉은 벽돌로 지어졌으며 대칭을 이루는 창문과 작은 첨탑, 그리고 거친 석재를 바른 외관에는 대만의 전통 문양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에 방문한다면 가이드 투어를 통해 교회 내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 내부에는 스위스 악기 제작자가 만든 40 개의 파이프가 있는 대형 오르간이 있는데 오늘날 예배 참석자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반주하는 것은 바로 이 오르간입니다.

맥케이 목사는 "내 마음은 대만과 분리될 수 없네! 내 인생의 행복은 바로 이곳에 있소"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만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고향"을 찾았다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그에 의해 설립된 교회는 위와 같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계속 보존되어 왔습니다. 2002년 5월에는 당시 문화국장이었던 룽잉타이 등이 개입하여 교회가 철거되는 것을 막았으며 건물을 앞쪽으로 이전하고 복원하는 데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 가화 신촌(오월천 벽)

변화한 사범대 상권에서 하천 제방을 따라 차들이 즐비한 퉁저우 길(汀州路)을 지나면 삼군 종합병원 퉁저우 분원 뒤편의 용춘 거리(永春街)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 "가화 신촌"이라는 비밀 장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1932년 일제는 이곳을 공원으로 계획했지만 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본 포병부대의 막사 기지로 개조하게 되었고, 오늘날 보이는 일본식 건물은 당시 접대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건너온 후에 국민당은 이곳에 합동 통신 수리공장과 육군 보급 사령부 군법부를 설치했습니다. 초기에는 수리 공장과 직원들의 부양가족들만 이곳에서 살다가 수리 공장이 이전한 후에야 마을이 공식적인 가화 신촌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공습 대피소는 1960년대 대만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당시 통신 장비와 기록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의 흔적은 새로운 세대에게 추억의 보물창고가 되었습니다. 골목의 붉은 문과 벽돌담, 오래된 나무가 인상적인 이곳은 대만 밴드 오월천(Mayday)의 <人生海海 People life, Ocean wild>, 청춘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 2>와 <16 개의 여름> 등 많은 영상 작품의 배경지이며 그 중 "오월천 벽"은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담장 앞 골목길은 당시 고위 장군들의 저택을 둘러싼 "장군의 골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쑤리런 장군 관저

산책로, 안뜰, 유리 집-난창로(南昌路)에 있는 이 저택은 오늘날 넓고 조용하며 고상한 장소로 인식되어 사람들은 이곳에서 애프터눈티, 미술 전시회, 정찬 등을 즐기고 때론 결혼 사진도 찍으며 결혼 연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당시 식민지 고위 관리의 관저였으며 때로는 외빈을 맞이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우아한 건물이 시민들에게도 여가생활 및 관람 목적으로 개방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민주의자의 귀속품"에서 "대중에게 개방"되기까지의 이야기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가정 먼저 전쟁 후에는 육군 총사령관의 관저로 사용되며 처음으로 입주한 사람이 바로 쑤리런 장군이었습니다.

한때 동양의 에르빈 롬멜이라는 명성을 떨쳤던 쑤리런은 중화민국 초기에 미국에 머물렀었던 소수의 장군 중 한 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 영국과 미국 정부로부터 명예 훈장과 포상을 받았습니다. 1947년 초 쑤리런은 군대를 훈련하기 위해 가오슝으로 이동했고, 한때는 육군 총사령관 겸 대만 방어 사령부 총사령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총통에 의해 군사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 은닉"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하며 이후 33년 동안 타이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금되어 생활했습니다. 그 후 타이베이의 관저는 육군 친목회관으로 바뀌었고 2000년대 민주화 이후에 비로소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 르산 (방공호) 공원

가라(加納)는 타이베이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입니다. 완화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가라 지역은 타이베이에서 비교적 먼저 개발된 마을 중 하나로 인간미가 넘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청나라 강희제 시대에는 바장리(八張犁), 허우취짜이(後厝仔), 샤주양짜이(下庄仔), 강짜이웨이(港仔尾), 쿠짜이터우(堀仔頭), 커짜이취(客仔厝) 등 흔히 "여섯 개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가라 지역은 토양이 비옥하여 간척 초기엔 사탕수수와 꽃 등 농특산물을 재배했는데, 특히 훈화차에 사용되는 "재스민꽃"과 "치자꽃"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는 재스민꽃이 잘 판매되지 않자 가라의 3대 보물로 알려진 죽순과 콩나물을 이때부터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경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르산 공원의 자연경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약 15,903회의 항공기 공습이 있었고 12만 개에 달하는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당시를 겪었던 어르신들은 미군을 속이기 위해 대나무로 가짜 비행기를 만들어줄 지역 주민들을 찾기도 했으며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대만 광복 초기, 비행기는 타이베이 과학기술 대학교로 옮겨졌지만 공원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의 성벽 돌담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방공호 유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공습을 떠올리면 남겨진 역사적 자취들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지금은 휴양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변모하였지만, 공원의 역사적 요소는 가라 지역 고유의 결과 규모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 청운각(QYG Art)

변화한 화시 거리(華西街)를 지나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들어가면 마치 이국적인 요조숙녀가 서 있는 듯한 명차 지역의 독특한 가옥 스타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축 스타일로 유명했던 "청운각"은 일제 강점기 윤락가의 상징물이자 당시 대만에서 제일 큰 유곽이었습니다. 현재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활기를 띠고 있으며 아름다운 외관만큼 내부의 건축 디테일 역시 전혀 허술하지 않습니다. 건축팀이 과거의 역사·문화적 사실을 고증하기 위해 여러 건축 부재에 대해 보존과 복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다 보면 과거의 역사적 맥락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편견이 아닌 다원적이고 친근한 문화로 발전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청운각을 나와서 앞으로 가면 청나라가 남긴 성벽의 석조 유적이 있고, 더 앞쪽으로 가다 보면 당시 강변 노천 찻집으로 가수들을 위한 최초의 노래 공연장이었던 "허나이장(河乃庄)"의 현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공간을 통해 당시 물가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던 타이베이의 여유로움과 아늑함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이곳의 독특한 여가 생활은 강 유역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물이 다니는 길을 따라 명차의 다양한 스타일을 살펴보는 것도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 국립 대만 대학교 캠퍼스 이소 에이키치 오두막

문발에 “대만 쌀 이야기”라는 여섯 글자가 붙어 있는 작은 목조 오두막은 이곳을 방문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자주 먹는 품종이자 찰기 있고 수확량이 많은 “평라이 쌀(蓬萊米)”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만 삼으로 지은 이 목조 주택은 처음에 타이베이 고등 농림학교와 이후의 타이베이 제국대학 부속 농림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현재에는 국립 대만 대학교 농예과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라이 쌀을 개발한 이소 에이키치 선생은 이 세 학교에서 모두 강의를 했고, 주로 열대 농업에 관한 제 3 강좌인 “작물학 교실”을 가르쳤습니다.

이소 에이키치 선생과 그의 동료인 스에나가 진 선생은 벼 재배 연구에 몰두하며 이 작은 오두막에서 품종 개량 방법을 자주 논의하였고, 1925년 “평라이 쌀” 개발에 성공하며 대만 농업의 양상을 바꾸어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같은 캠퍼스 내에서 서로 다른 깃발이 휘날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소 에이키치 교수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만에 남게 되었고, 12년의 긴 시간동안 오두막에서 후배들을 양성한 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오두막은 하루하루 사용되던 중 점차 파손되어 원래는 철거 위기에 처했었지만, 다행히 학생들이 교수가 남긴 귀중한 원고와 다양한 기록 및 조사 자료를 발견하게 되어 오히려 농업학 역사 연구 및 전시의 거점이 되었고 더 나아가 고적보존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대만 대학교 농예과 교수진과 학생들은 이곳에서 “종자 테스트”를 위주로 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많은 공헌을 이룬 이 학자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 몽골·티베트 문화관

장가 호톡투(Janggya hotogtu)는 중국 북서부의 칭하이성에서 태어난 티베트 불교(라마교)의 4대 생불(生佛) 중 한 사람으로, 과거 신도들은 주로 몽골과 칭하이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현대사에서 연이어 발발한 전쟁을 따라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하며 살다가 마침내 타이베이시 남쪽 한 구석에 정착해 칭텐가 골목에서 마지막 8년을 보냈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에 따라 거주하던 곳을 기부하여 현재의 몽골·티베트 문화관이 탄생하였습니다.

당시 중화민국 정부에 충성했던 그는 제 2차 세계대전과 국공 내전이 일어나면서 수차례 정부가 바뀌는 동안 “호국정각보교대사(護國淨覺輔教大師)”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통부 자정(資政)직에 초빙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중국 청두에서 타이베이로 이사할 때에는 많은 불상과 법기 등 귀중한 유물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물 중 하나는 티베트 불교에서 부처의 화현으로 여겨지는 천년 된 법기인 “구루초왕 카르마 바쭈라(咕嚕秋旺普巴杵)”로, 현재에는 국립 고궁박물관의 전문가 팀이 복원하여 문화관 3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몽골·티베트 문화관은 기존의 문화 유물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재신 신앙부터 전통 축제 의상에 이르기까지 몽골 및 티베트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품을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관에서는 때때로 영화제와 음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협 소설을 통해 접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두 지역의 종교, 예술 및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몽골·티베트 문화관은 꼭 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 화남 신촌

슈빙로를 따라 즈난로 방향으로 걷다가 완서우 다리를 건너면 인문학의 전당인 국립 정치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치 대학교는 타이베이시에 있는 연구 대학으로 인문, 법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학술계에 큰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 학생 수가 많았던 정치 대학교는 교직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캠퍼스 외곽에 교직원 기숙사 "화남 신촌"을 지었습니다. 화남 신촌의 가장 큰 특징은 나란히 서 있는 2층 집과 붉은 벽돌로, 이곳은 <양광보조(A Sun)>, <통령소녀(The Teenage Psychic)> 등과 같은 작품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한때 존폐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문화자산보존법에 따라 지역 주민과 학교 당국 간의 열린 소통 및 논의를 통해 전 구역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인문, 자연, 건축 요소들은 모두 문화적 기억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거리를 걷다 보면 시적 정취 또한 물씬 느껴집니다. 붉은 대문에 햇볕이 내리쬐면 보이는 얼룩덜룩한 흔적은 따듯한 문화적 관용을 드러내며, 성별 친화적 다양성을 실천하고 사회적 성별 이분법의 속박에서 벗어남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대학 직영의 기숙사 중 최초의 "완전한 성 중립"을 구현한 곳으로 "방문"의 장벽을 허물어 화남 신촌만의 새로운 인생 가치관의 장을 열었습니다.



## 샤오징천 문학 산책로(샤오징 백년 토지신)

샤오징 백년 복덕궁 옆의 오래된 팽나무는 높이가 8층 건물에 달할 뿐만 아니라 최대 75 평에 달하는 나무 그늘을 만들며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드나들고 일상을 보내는 야외 정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대략 19세기 중반 청나라 도광 황제 시기에 심어져 족히 백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최초로 개척한 사람은 오늘날에도 그 후손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정씨 가문으로, 장씨와 고씨 가문의 후손들과 함께 이곳 토지공묘를 관리했습니다. 복덕궁에는 총 세 개의 신상(神像)이 있는데 완성된 시기에 따라 인간형 석상, 석조 신상, 목조 신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두공(石頭公)은 초기 개척자들이 발견한 인간형 석상으로 신도들이 신에게 보답하기 위해 조각한 석상이지만 토지신이 자신의 위치를 바꾸지 않으려는 바람에 석상은 그 옆에 모셔져야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목조 신상 역시 앞선 두 신상과 함께 향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원은 샤오징천 문학 산책로의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책로의 이름은 길 양쪽에 많은 시(詩) 문구들이 풍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붙여졌습니다. 자연경관과 꽃, 새, 곤충, 물고기 외에도 냇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설치한 물가 계단은 가족들이 언제나 와서 물놀이를 하며 맑은 물속의 물고기와 새우 떼를 볼 수 있다는 샤오징천 문학 산책로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 징메이리 활동 센터

징메이 옛 거리에 들어서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징메이 야시장 주변의 모습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며 그곳의 조용한 분위기에 속도를 늦추고 잠시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곤 모퉁이를 돌아 위잉가 57 항으로 가면 주택들의 향수 어린 분위기가 눈길을 끌고, 친절한 마을 이장님이 따듯하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을 건네실 것입니다:“이곳은 예전에 국가에 귀속된 숙사였으나, 후에 주민들이 이사하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 신청을 통해 현재의 징메이리 활동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최초에 이곳은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가득했지만,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따듯한 활동 센터로 변화시켰다며 지난날을 회상하실 것입니다.

이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숨겨져 기발한 아이디어로 활용되고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낮은 담벼락에 놓인 화분은 초창기 라디오 스피커였고, 대문 옆의 장식물은 50여 년 전의 경찰서 알림벨 전등함이었습니다. 수동 양수기는 전기 양수 모터가 없던 1940~1950 년대에 물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였으며, 백 년이 된 매화나무와 뽕나무는 무수한 세월을 묵묵히 모든 세대를 함께했습니다.

활동 센터는 또한 공동 식사와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머니회는 몇 가지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 마을 주민들의 밥상을 풍성하게 하며 동네에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다 같이 축하해주곤 합니다. 이렇게 여러 보살핌이 쌓여 이웃의 우정이 더욱 두터워지니 징메이리의 정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고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시커우 (무지개) 부두

쑹산역은 오늘날 타이베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 중 하나로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많은 통근자와 학생들이 이곳에서 환승을 합니다. 심지어 이곳은 200~300 년 전에도 이미 주요 교통의 중심지였으니 쑹산역에서 환승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대화이자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쑹산이 교통의 중심지가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글자만 보고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옛 지명 "시커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초에 바사이족의 마리샤까우(Malysyakkaw) 그룹은 취안저우 이민자들에 의해 마오리시커우 그룹, 줄여서 시커우라고 불렸으며 Malysyakkaw 는 강이 굽이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무역을 위한 나루터가 갖춰져 있었으며, 삼맹갑으로 불리던 대만의 경제 중심지 완화에 버금갈 정도의 번영을 누렸던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당시의 대만 행정 장관을 맡고 있던 류명전 역시 철도 노선 계획을 통해 이곳에 역을 세웠고, 일본 통치 시기에 들어선 뒤에도 몇 번의 증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교통과 산업이 변화하면서 하천 운송은 더 이상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나루터 역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변 수변 산책로와 함께 타이베이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 쑹산 문화 창의 단지(쑹산 담배 공장 사가 기념비)

타이베이시 신이구에 위치한 쑹산 문화 창의 단지는 2022년 구글 지도 세계 10대 문화 명소에 선정되었습니다. 6.6헥타르 면적의 옛 쑹산 담배 공장의 건물과 유적지를 재생하여 눈이 즐거운 문화 창의 전시 및 공연이 펼쳐지는 창의력 집합소 "쑹산 문화 창의 공원"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곳은 타이베이 문화 체육공원의 중요한 문화 및 역사적 핵심 자산이자 국내의 중요한 창작 거점으로써 국제적으로 유명한 문화 명소이자 타이베이시의 창조 외교를 위한 명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쑹산 문화 창의 공원에는 쑹산 담배 공장의 정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인 "쑹산 담배 공장 사가 기념비"가 공원 내 쑹옌 마당의 대만 디자인관 입구 왼쪽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념비에는 중국 저장성 Ningbo시 상산현 출신으로 1949년 중화민국 육군 중대장의 신분으로 대만에 온 작사가 하지호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총 73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사가는 당시 대만 경제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떠오르는 산업으로써 생산액이 NTD 210억에 달했던 "쑹산 담배 공장"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에 봉사하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생산량 증대에 힘썼던 공장 직원들의 정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23년 SONGYANLAND FESTIVAL에서 아티스트 우보셴은 쑹산 담배 공장 사가를 재편곡하여 무용가 라이쉬친, 황유팡과 함께 전시 기간동안 선보이고 담배 공장 시대의 영원한 찬란함을 회상했습니다.

## 조미 고도(쌀을 나르던 옛길)

타이베이시 남동쪽 끝에 위치한 우싱 거리(吳興街)는 변화하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앞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점상들이 영업하는 떠들썩한 시장이지만, 모퉁이만 돌면 나오는 중간부터 뒤쪽까지의 거리는 작은 마을에 온 것처럼 한적합니다. 약 700 미터의 산으로 올라가는 500 개의 돌계단은 과거 난강, 무자, 선경, 징메이 등으로 쌀을 나르던 지름길이었으며 이로 인해 조미 고도(쌀을 나르던 옛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고도(옛길)는 타이베이 초기 역사 발전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현대화된 타이베이에는 조미 고도뿐만 아니라 산장리와 난강 산계 부근의 차로 고도, 토지공령 고도, 권산 고도 등 과거 농민들이 농작물을 운반하기 위해 다녔던 옛길이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후의 조미 고도는 평평하고 밝아졌으며 가로수가 늘어선 길, 신선한 공기, 길가에 있는 연못 등은 소소하게 이목을 끄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짧은 길을 따라 대만 민간신앙의 근간이 되는 재신묘, 지장전, 토지공묘 등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및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은 사당들은 과거 이 길을 빈번히 오가던 상인들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 후스 기념관

학교 교과서 공부를 통해 후스가 신문화운동의 창시자이자 지도자임과 동시에 관대하고도 엄격했던 그의 어머니가 후스 자신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중국어권 세계 사상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생애 마지막 3년을 타이베이의 한 주택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이 저택은 중화민국 총통부와 중앙연구원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곳으로, 당시 유행하던 미국식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후스의 생전 마지막 3년 동안의 일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그의 사후에 현재의 호적 기념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택 옆에는 묘지와 전시실이 있으며 후스의 저서, 원고, 사진, 유품 및 기념품 등을 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명인의 방이 종종 중요한 명소가 되어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글을 쓰고 또 생활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의 묘지나 유물 박물관을 찾아 추모를 하기도 합니다. 타이베이에 있는 후스의 방과 묘지, 유물 박물관은 모두 한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가 대표했던 역사의 한 부분을 동경해 본 적이 있거나 교과서에 나오는 이 유명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곳은 당신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 신복 본갱

산에는 나무, 곤충과 새, 과거에 산에서 행했던 산업과 촌락의 흔적 등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보물을 직접 보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네이후구에 있는 비후 산책로는 고저차가 50m도 되지 않아 30분이면 가볍게 완주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꽃이 피는 계절에는 작은 유플로아 나비, 줄무늬 유플로아 나비, 남방노랑나비, 청띠제비나비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책로에는 아카시아 나무, 센달나무 그리고 다양한 양치식물이 있으며, 대만 까치 관찰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정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 경관으로는 100년의 광산 역사를 간직한 신복 본갱이 있으며 재건된 운반 철도와 선로는 당신에게 작은 탐험을 떠난 듯한 느낌을 줌과 동시에 열심히 채굴하는 한 명의 광부가 되는 듯한 상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대만의 많은 광산과 마찬가지로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산 재해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타이베이는 밝고 현대적인 인상을 주고 있지만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선인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 텐쉐이 원앙 호수

네이후구 대륜두산에 위치한 텐쉐이 원앙 호수의 푸르고 풍부한 물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곳이 잡초가 가득한 진흙투성이의 건조한 연못이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호수는 한때 네이후 지역에서 지형이 가장 높은 수원지였으며, 대비두(大埤頭)라는 별칭에서 이곳이 과거 관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원앙의 서식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3년부터 시작된 주변 지역의 누수로 인해 비당(연못)이 한동안 말라버렸고 원앙 떼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시 비당은 더 이상 주민들의 주요 수자원이 아니게 되었고, 원앙 호수 역시 산속에 버려진 채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시정부는 2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기존에 익히 사용하고 비교적 간단하지만 생태계엔 이롭지 않은 시멘트 사용을 거부하였고, 대신에 방수가 뛰어나며 환경친화적인 토목 합성수지 점토 라이너를 사용하여 호수 바닥을 복원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복원된 현재의 비당은 운치 있고 비밀스러운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나들이를 즐기다 보면 호수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헤엄치는 한 쌍의 물새를 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로맨틱한 것이 있을까요?